

이주의 서사와 로컬리티*

- 『나마스테』와 『잘가라, 서커스』에 재현된 이주 공간

문 재 원**

차 례

- | | |
|--------------------------|-------------------------|
| 1. 들어가기 | 2) 이곳과 저곳의 경계 |
| 2. 이주(migration)와 로컬의 위상 | 3) 혼종적 주체들의 가능성: 환대와 연대 |
| 3. 경계 넘기의 서사적 재현 | 4. 남는 문제: 재현의 전략들 |
| 1) 이방인의 출현과 “부천”의 이중성 | |

국문초록

오늘날 전지구화의 흐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경을 넘는 이주는 공간 경계를 교란시키고 해체하면서 기존의 경계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과정에서 이주 주체와 공간의 새로운 관계 맺기가 형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경계 넘기의 다양한 현상들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를 주목하고 박범신의 『나마스테』, 천운영의 『잘가라, 서커스』를 통해 이주공간이 어떻게 서사적으로 재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L0001).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

『나마스테』는 네팔에서 온 노동자 카밀의 이야기가, 『잘가라, 서커스』는 조선족 결혼이주 여성 림해화의 이야기가 중심 플롯을 형성하며 새로운 정착지에서 주체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인물들은 일차적으로 이국적이고 낯선 이방인의 고행담의 정형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주변부 부친의 가능성, 이방인들의 연대나 환대 안에서 이주 주체의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소설에서 재현된 공간 경계는 여전히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주의 서사화는 소재적 차원이나 단순한 공간적 확장의 차원에서 벗어나 혼종적 주체들의 흔적과 역사적 궤적에 대한 진정성으로 이어질 재현전략들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이주, 이방인, 경계, 로컬리티, 재현

1. 들어가기

지구화시대의 큰 특징은 자본과 상품, 그리고 사람들의 끊임없는 이동이 국경을 초월하여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아파두라이(A. Appadurai)는 새로운 전지구적 문화 경제는 이제 더 이상 현존하는 중심-주변 모델들의 용어로는 이해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며, 탈구(disjuncture)적인 질서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에스노스케이프(ethnoscapes), 미디어스케이프(mediascapes), 테크노스케이프(technoscapes), 파이낸스케이프(financescapes), 이데오스케이프(ideoscapes)등을 전지구적 문화 흐름의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특히 ‘에스노스케이프’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변하는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풍경을 뜻한다. 그는 여행자와 이주민, 피난민, 탈출자, 임시노동자, 그리고 여타의 이동 중인 집단들과 개인들은 세계의 본질적인 모습을

구성하며 국가 정치(혹은 국가간 정치)에 유례없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주와 정착의 과정에서 구체적 일상이 이루어지는 로컬(local)과 매개된 정체성의 정치는 지구화시대에 중요한 화두¹⁾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경제적 흐름과 문화적 상징의 침투는 기존 상징적 공동체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재규정하며 이때 로컬은 특정한 맥락 속에서 새로운 의미망을 형성한다. 초국가적 이주(migration)로 인해 국민-국가를 떠받치고 있는 토대들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는 조짐은 영토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시에 단일하고 고정된 정체성에 대한 믿음의 상실에서도 나타난다. 단수이기보다는 복수,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유동적이고, 서로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겹치며 넘나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체성들과 혼종성²⁾에 대한 관심은 이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맞물려 있다. 유동성과 혼종성이 내적 형식으로 자리잡은 이주는 국가-국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가 실현되는 구체적 이주지의 경계(선)를 변이시킨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가 집단적으로 진행되는 마을에 사는 이주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다중적 정체성은 로컬의 젠더 규범을 넘어 자아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는 로컬 정체성을 형성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작동되기도³⁾한다.

1) 아르준 아파두리이, 배개화차원현·채호석 역(2004), 『고삐풀린 현대성』, 현실문화연구, 60-67쪽.

2) 김용우, 「초국가적 유럽 이주사 연구를 위해」, 『서양사론』 102호, 2009, 363쪽.

3) 이에 대해서는 한국의 다문화 가정 속에서 여성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충남 J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한 김은살·김정선, 「지구/지역 시대 개인들의 행위전략으로서 국제결혼」,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편, 『지구화시대의 현장 여성주의』, 이화여대출판부, 2007)을 참고할 것. 일반적으로 여성 연구자들은 국제결혼의 피해자로서 여성의 비자발성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담론의 확산은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속에서 언제나 피해자 여성만이 강조되었다. 여기에는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동기는 언제나 전형화되어 있고, 한국에서 여성의 삶의 형태도 고정적이다. 그러나 충남 J 마을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나온 결과는 기존의 결과와 사뭇 다르다. 이 연구는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자신의 결혼을 어떻게 경험하고 의미화 하는지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이 맺고 있는 현장의 경험과 관계성을 전후(결혼 전후)로 살펴

한편, 최근 한국문학 내에서도 이주는 주요한 제재로 등장하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은 국경을 넘는 이주의 문제를 수용하면서,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탈북자, 다문화가정, 코시안 등을 문학적 소재로 선택하고 있다. 일반적인 범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나, 여기에는 일정한 정형성이 발견된다. 고통받는 타자에 대한 연민을 유도하는 서술기법을 통한 전형적인 타자의 형상화가 그것이다. ‘깊고 선한 눈’과 ‘박해받는 몸’은 이들 신체의 전형적인 재현방식이며 이러한 재현 방식에서 이주의 경로가 만들어내는 공간 또한 피해자/가해자, 선/악의 선택지 위에 놓여있다. 무수한 집단과 개체들이 국경을 넘었고 또한 많은 복수의 변이선들이 이주공간을 만들어 냄에도 소설 속의 목소리가 단일한 것은 재현하는 주체의 고정적인 시선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때 이주를 통해 설명되는 공간의 확장은 다시 굳건한 국경(안/밖)의 테두리로 갇히는 순환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면은 재현하는 주체, 이주민을 바라보고 수용하는 재현의 주체들을 지배하는 담론, 이주(민)에 대한 주류 담론들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한 지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동일시와 정형화된 재현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주의 서사적 재현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로벌과 로컬이라는 이항대립에 빠지지 않고 다층적이면서 분열적인 변용과정으로서 지구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떠한 장소에서 논의되고 있는가”⁴⁾의 문제를 예의주시할 것을 당부한 요시미 순야의 말을 원용해 이주 현장인 로컬과 주체의 시각에서 이주에 대한 문제들을 사유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주의 문제가 로컬(로

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이들이 형성하는 정서적인 양식까지도 각각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적인 가족 질서에 적응할 것을 요구받는 여성이라는 단일한 이미지로 표상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방식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을 형성하며, 특히 이들은 “다중적인 정체성을 소유하며 이는 로컬의 젠더 규범을 넘어 자아 정체성을 새롭게 협상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4) 요시미 순야, 박광현 옮김, 『문화연구』, 동국대출판부, 2008, 171-172쪽.

컬리티)에 어떻게 개입하는가의 문제를 지구적 변환 속에서 고찰하고, 이것이 특히 한국문학 작품 안에서 재현되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이주(migration)⁵⁾와 로컬의 위상

5) 오늘날 diaspora/ migration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물론 이 두 용어가 개념상 상당히 겹쳐있다. 특히 최근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국제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자, 문화적 차이와 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출판부, 2004, 5쪽) 그러나 디아스포라는 어원적으로 그리스어 전치사 dia(over)와 동사 spero(to saw)에서 유래되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식민지를 삼은 뒤 그곳으로 자국민을 이주시켜 세력을 확장한 것을 지칭하여 처음 사용되었다. 이때 디아스포라는 이주와 식민지 건설을 의미하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다. 이후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의 유랑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이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는 영어 대문자 'D'로 시작하여 'Diaspora'로 표기하는데, “바빌론 유수 이후 팔레스타인 밖에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 거류지” 또는 “팔레스타인 또는 근대 이스라엘 밖에 거주하는 유대인”을 가리킨다. 샤프란(William Safran)의 정의에 의하면, 디아스포라는 몇가지의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특정한 기원지로부터 외국으로의 이동 둘째, 모국에 대한 집합적 기억 셋째, 거주국 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다는 희망의 포기과 그로 인한 거주국 사회에서의 소외 넷째, 조상의 모국을 후손들이 결국 회귀할 이상적인 땅으로 보는 견해 다섯째, 모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헌신 여섯째, 모국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William Safran, “Diaspora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Migration, Diaspora and Transnationalism*. eds., Steven Vertovec & Robin Cohen, Massachusetts: Edward Elgar, 1999, p.364) 샤프란이 제시한 디아스포라의 전제조건은 매우 협소하다. 그러나 모국에 대한 집합적 기억이나 모국에 대한 헌신은 디아스포라의 기본 정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샤프란의 전제조건들은 충족시키는 개념정의는 다소 협소하여 지금 현재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산되는 디아스포라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디아스포라 연구의 맥락을 살펴보면, 개척과 영광의 표상에서 고난과 희생의 표상(William Safran)으로 이동되고 있고, 최근에는 다시 ‘혼종적 주체’(Inderpal Grewal, Avtar Brah, Aihwa Ong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디아스포라는 이주와 겹치기도 하고, 이주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이주는 국제 이주 뿐만 아니라 국내의 이주도 포함하고 있으며, 영구적 이주 뿐만 아니라, 계절적, 순환적 이동까지도 포함한다.(윤인진, 앞의 책,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100만 명을 넘었다.(116만 8천 477명. 2009 12.31기준)⁶⁾ 이는 국내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들을 다시 국적별로 보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국적이 가장 많고,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 미국 순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눈여겨 볼 것은 증가의 속도이다. 외국인 분포가 전년도 대비 24%가 증가했다. 향후 세계화의 속도나 규모, 결혼이주민 가정의 2세 등을 통해 그 증가의 속도는 한층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이라는 일국(一國) 내의 문제만은 아니며 지구화시대 네이션을 둘러싼 경계선이 새롭게 중층적인 방식을 통해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주의 문제는 일국적 문제이자 국가 간의 문제이며, 구조적인 문제이자 개인의 욕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며, 계급의 문제이자 인종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지구적인 노동시장의 재편과 관계된 시장의 문제이자 동시에 문화적 관용 혹은 배제의 문제이기도 하다.⁷⁾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초국가적 이주의 문제가 지금 우리 앞의 현실로서 있으며 이로 인해 이주가 일어나는 국지적인 현상으로서의 로컬의 지형도가 변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이주에 대한 관점이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트랜스내셔널리티(transnationality)에 바탕을 두고 있다. 상호주체성, 다문화, 동화, 통합⁸⁾

4-8쪽 참조) 본 논문에서 초점을 두는 것은 공간적으로는 국가를 넘고, 시간적으로는 제한적 범주와 무제한의 범주를 함께 고려한다. 이주는 A 위치(출발지)에서 B 위치(도착지)로 이어지는 행렬을 그리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주의 장이 작동함으로써 자리 잡게 되는,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체계이다. 이런 체계의 영역은 세계에 대한 지역의 가변적 층위일 수 있는바, 그것은 장소(출발지, 도착지, 기착지, 이런 것들은 오랜 기간의 이주를 위해서는 특별히 필요한 것들이다), 영역, 영토, 조직망(연결통로 및 그것들의 주요 지점들)을 유기적으로 구성해 내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J. Lévy & M. Lussault, *Dictionnaire de la Géographie et de l'espace des sociétés*, Belin, 2003, p.616)

6)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자료실(<http://www.immigration.go.kr>) 참조할 것.

7) 오경석,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2007, 23-24쪽.

등을 키워드로 내세우면서 이들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국가/민’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대안의 공간으로 상정하는 것은 초국가적 공간(transnational spaces)/ 초국가적 주체(transnational form of subjectivity)⁹⁾ 등이 된다. 국가의 경계가 확고하게 설정된 테두리 내에서의 다문화는 상호 인정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영역(territory)의 문제에서 안/밖의 위계성은 유효하게 작동하게 되는 문제가 남는다. 이주의 흐름에서 정착지와 이주공동체가 성립되면,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송출 공동체와 유입공동체간의 다양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이때 이주 공동체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토착문화와의 비교점과 대조점을 발생시킨다. 본국과의 광범위한 연결이 있든 없든 일단 이주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문화적 권력과 사회적 정체성의 유형이 새로 생겨나고 바뀌기도 한다.¹⁰⁾ 물론 한 사회 안에는 출생과 학업, 노동, 가족 관계를 둘러싼 전통적 형태의 안정된 공동체들과 관계망들이 여전히 큰 몫으로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삶과 유동성의 증가가 맞물

8) 필자가 최근 몇년간 주요 일간지 기사에서 이주,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 등을 키워드로 무작위 검색한 것에 의하면, 기사 배치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 기사 보다 결혼이주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면과 횟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는 인구 면에서도 결혼이주민에 비해 노동이주가 5배가량 많으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노동이주에 훨씬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신문기사의 배치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결혼이주는 한국사회의 통합의 대상이 되나, 노동이주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단기적 합법적 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한시적이며 임시적일 뿐이다. 그래서 노동이주는 통합대상이 아니라 단속과 추방의 대상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외국인 정책의 단계별 특징에 그대로 반영된다. 초창기 정책 부재기-산업연수제(1991-2003)-고용허가제(2004-2006) -이주노동정책에서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단계적 전환을 보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이민정책’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결국 동화, 통합의 논리가 전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해경, 「이민정책과 다문화주의: 정부의 다문화정책 평가」,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국사회학회. 2007 참조할 것)

9) 김용우, 앞의 논문, 372쪽.

10) 문화관광부, 『이주민 공동체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조사 연구』, 2007 참조.

려 마치 씨줄-날줄이 교차되는 인종 경관을 새롭게 직조하고 있는 것이다.¹¹⁾ 이런 점에서 이주란 육체와 자원 아이디어와 감정의 공간적 이동을 수반하는 과정이다. 이 공간적 이동은 단순히 공간을 가로지르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스케일을 창출하거나 기존의 스케일 질서를 교란하는 스케일의 정치과정이기도 하다.¹²⁾ 이러한 이주지와 정착지, 이주민과 토착민의 관계는 “명확한 분리선”의 작동보다는 “창조적 긴장”의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주의 문제를 경계 넘기의 다양한 현상들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관계의 장소, 동질성과 이질성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다양한 차이가 생산되는 장소- 이주자들의 노동현장, 생활기반적 장소 등- 에 주목하면서 문제들을 재설정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로컬 현장은 단순히 상이한 공간성을 표현하는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맥락 안에서 결정되는 다수의 시공간성과 그 안에서 살아가고 실천하는 이주 주체들을 주체화할 수 있는 개념이다.¹³⁾ 즉 여기에서는 이주의 보편자가 아닌 국가나 민족을 넘어 마을, 아내, 며느리, 이웃 상호네트워크, 공동체 등의 여러 복수 채널을 가진 개체의 복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주의 문제와 관련된 로컬 단위의 문제는 실제 분석을 통해 많은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국가적 이주는 초국가적 스케일과 국가 스케일뿐만 아니라 보다 작은 스케일, 즉 개인의 몸, 가정, 지역사회 등의 수준에서도 분석되어야 한다.¹⁴⁾ 이때 로컬의 단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으로서의 로컬(locale), 특정 시간과 연관된 실제의 장소로서 로컬(local), 로컬이 로컬로서 위계화된 지식

11) 윤혜린, 「문화 횡단의 맥락에서 본 문화 상대화와 문화 상대주의 사이의 개념적 공간에 대한 여성철학적 성찰」 『철학』 95집, 2009, 296쪽.

12) 정현주, 「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대한지리학회지』 43권 6호, 2008, 905쪽.

13) 이상화, 「지구화사대의 현장 여성주의」, 이화여대한국여성연구원 편, 앞의 책, 37-40쪽 참조.

14) 정현주, 앞의 논문, 901쪽.

이 형성되는 방식(location) 등을 상정할 수 있다. 프로빈(E. Probyn)은 여성 활동의 주 무대인 ‘가정’을 로컬(locale)의 출발점으로 삼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시간적 장소에서 어떻게 지식으로 정렬되고 사회적 위계질서 안에 배치되는지 탐구할 필요를 강조한다.¹⁵⁾ 프로빈의 견해를 원용한다면, 현재 이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결혼이주와 노동이주의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정, 작업장 등이 일차적 로컬이 되면서 다시 공동체,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나아가는 지점에서 로컬, 로컬리티(locality)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로컬리티 연구에서 특히 주안점을 두는 곳은 이주를 통한 새로운 장소의 탄생이다. 국가 경계 넘기의 다양한 현상들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관계의 장소, 동질성과 이질성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다양한 차이가 생산되는 장소, -이주자들의 노동현장, 생활기반적 장소 등- 에 주목하여 로컬리티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이주가 경제적 지구화의 동인이자 결과물이라는 부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이것이 경제적 결정론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지점을 보여준다. 이는 일상적 경험과 생활세계, 실천과 의미화 그리고 주체 형성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의식의 변화라는 측면¹⁶⁾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접근은 이주공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가/ 지역(region)/ 지구적 단위의 힘들이 중층적으로 얽혀 교차와 대립의 새로운 권력의 지형도가 만들어지는 구도 안에서 에드워드 소자가 말하는 ‘사이공간(in-between space)’으로서 이주공간에 대한 재현은 이주민들이 영토, 국가, 인종, 지역, 계급, 문화 ‘사이’에서 자신을 정체화하는 이주 주체의 재현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주 주체인 낯선 이방인은 그 존재만으로 (초)민족국가성의 정치경제적 기표 아래 민족/국가에 대한 새로운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의미있는 출발점¹⁷⁾으로 작동될 수

15) Elspeth Probyn, “Travels in Postmodern: Making Sense of the Local”, Linda Nicholson ed., *Feminism/Postmodernism*, Routledge, 1990, pp.178-186.

16) 윤혜린, 앞의 논문, 297쪽.

있는 존재성을 지닌다. 국경을 넘거나, 넘어선 국경 안에서 계토화된 도시의 주변부를 형성하고 있는 낯선 인물들에 대해 서사적으로 응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간 존재의 기원과 형식에 대해 탐색하고 근대적 개인의 삶과 국민국가의 안/밖을 사유하는 것이 이주의 서사적 재현의 출발지다.

3. 경계 넘기의 서사적 재현

본 장에서는 박범신의 『나마스떼』(2005)¹⁸⁾와 천운영의 『잘가라, 서커스』(2005)를 중심으로 한국문학 작품 안에서 이주의 서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장소와 정체성의 문제를 이주를 구상하는 주요틀로 상정하고 이들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¹⁹⁾

3-1. 이방인의 출현과 “부친”의 이중성

『나마스떼』는 네팔에서 온 노동자 카밀의 이야기가, 『잘가라, 서커스』는 조선족 결혼이주 여성 림해화의 이야기가 중심 플롯을 형성한다.²⁰⁾

-
- 17) 태혜숙, 『대항지구화와 아시아 여성주의』, 울력, 2008, 258쪽.
 18) 한겨레신문(2004. 1.1-12.30)에 연재되었으나, 본 글에서는 이후 출판된(한겨레신문사, 2005) 작품을 텍스트로 삼는다.
 19) “다문화”(우한용, 「21세기 한국사회의 다양성과 소설적 전망」, 『현대소설연구』 40), “디아스포라”(오윤호, 「디아스포라의 플롯」, 『시학과 언어학』 제17호), “이산”(지용신, 「재현된 서사와 이산 체험의 복원」, 『한국문예비평연구』, 2008, 8), “타자”(이호규, 「‘타자’로서의 발견, ‘우리’로서의 자각과 확인」, 『현대문학의 연구』 36) 등 이주의 문학공간을 고찰하는 시각은 논자들에 따라 다양한 착근점이 설정된다.
 20)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노동이주와 결혼이주는 자본이라는 동일한 카르텔에서 움직이고 있으나 결혼이주에는 또다시 젠더의 문제가 핵심적으로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통합과 동화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주의 담론에서 결혼이주의 자리는 공적인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현장의 논리, 담

이 두 작품의 서사적 무대는 공통적으로 ‘부천’이다.²¹⁾ 네팔과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부천’이라는 장소를 매개하고 있는 것은 중층적인 부분을 함의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잘가라, 서커스』의 경우, ‘변방에서 변방으로’라는 결혼 이주의 전형적인 경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림해화의 집은 맞선 장소에서 “비행기를 타고 옌지(延吉)로”, 옌지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세 시간을 달려 둔화(敦化)에 도착해” 다시 “작은 버스로 삼십 분을 더 들어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갑작스런 딸의 국제결혼이 집안에서 더 이상의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 것은 해화의 집이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도 관련이 있다. 이는 서울 근교에서도 인근마을과 달리 “아파트 부지”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남자 집의 지정학적 위치와도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볼 때 서울의 변방에 위치하고 있는 ‘부천’이 서사적 무대로 설정되고 있는 것은 ‘변방에서 변방으로’라는 현대 이주의 양상인 ‘이주의 빈곤화’에 드러나는 이동의 경로를 내포하고 있다.²²⁾ 또한 소

론의 배치 등에서 노동이주와 결혼이주는 다르게 사유될 필요가 있다.

21) 부천은 전체 인구 875,000명(2009년 11.31 기준)에 외국인인 15,061명으로 외국인인 비율은 전체 1.72%(부천시 자료, 등록자에 한함)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이 100만을 넘었고, 전체 인구비율의 2%에 해당된다(110만 6천 884명 전체 인구 2.2%, 서울: 33만 4천 910명, 경기 32만 3천 964명 2009. 5월 기준)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전국적 분포도와 유사한 비율을 차지한다. 인근의 안산, 시흥 등 경기도 지역은 이주 초기에는 외국인 비율이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국의 이주 공동체 활동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이 주변부 도시로 집중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주여성들이 제조업과 농업 등 3차 산업보다는 1, 2차 산업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한편 국제적 이주자들이 특정한 장소에 집중하는 것은 두 가지의 장소적 특성에 기인한다. 하나는 그 장소가 역사적이고 장소특수적인 조건으로 인해 외국인들에 대한 문화적, 경제적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들이 모이면서 그들의 사회-경제적 네트워크가 그 장소에 뿌리내리면서 그를 바탕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고민경, 「초국가적 장소의 형성: 이태원을 중심으로 바라본 서울의 위계화」,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2009 참고) 이러한 전제에서 볼 때, 부천의 경우는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2) 메시(D. Massey)는 국제성별분업에 의하여 이주여성이 도시의 공간을 점유하

설 작품 안에서 부천이라는 장소는 애초부터 자본주의의 한복판으로 설정된 곳도 아니고 그러나 서울을 매개로 전지구화의 흐름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복사꽃”(『잘가라, 서커스』)이 환하게 피어나고 “산나물”(『나마스테』)을 캘 수 있는 곳이다.

『나마스테』에서는 국가 안에 또다시 서울과 부천, 다시 서울과 로스앤젤레스 다시 한국과 미국, 서울과 카밀라스를 복합적으로 병치시켜 놓고 있다. 먼저 외국인 카밀과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 신우의 경우, 어린 시절 서울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갔다가 LA폭동으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고 다시 한국으로 나와 정착한 곳이 ‘부천’이다. 이러한 이동의 경로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부천이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자본의 욕망이 좌절되고 돌아온 인물들의 새로운 안식처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우나 엄마가 부천행을 선택한 것과 달리 오빠는 부천이 아닌 서울을 선택하고 있다. 서울-LA-서울/부천의 이동경로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서울과 부천의 거리이다. 서울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곳으로 설정된 부천은 한편으로 여전히 서울(일터가 있는 동대문)의 강력한 규정력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죽음 이후 가장 역할을 담당하는 오빠가 거주하고 있는 곳도 서울이고, 나의 일터가 있는 곳이 서울이고, 또한 작품의 후반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농성과 죽음이 일어나는 공간도 서울이다. 서울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그 곳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천이라는 선택지는 대도시 서

는 방식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주변인으로서의 비가시적 이주여성의 문제를 문화지리학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의하면 이주여성의 이동경로와 이주해간 지역에서의 공간적 위치가 보여주는 주변인으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드러나면서 결국 전지구적 차원에서 보면, 변방에서 변방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 출신국에서도 대도시보다는 변방 지역으로부터 출발하여 한국에도 대부분 한국여성들이 꺼려하는 농촌으로 또는 도시의 변두리로 이동함으로써 이주의 빈곤화를 재생산한다. (이수안, 「스킨 서핑: 성적 타자로서의 결혼 이주여성 이미지」, 이화여대 인문과학원 탈경계의인문학 연구단 국제학술심포지움 자료집, 2009, 9. 재인용)

울 혹은 LA가 상징하는 자본주의 욕망의 한복판에서 비켜서고자 하는 소설적 욕망의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이러한 부천이라는 서사적 공간에서 이주 주체들은 부천의 일상을 깨뜨리는 존재로 등장한다. 인물들은 “낮설다”라는 인식을 통해 부천의 공간경계는 깨뜨려진다. “이물감”의 낮설음(『잘가라, 서커스』), 4월에 나타난 “설산(雪山)”의 풍경으로 상징되는 부조화의 낮선(『나마스테』) 흔적들로 부천은 재조감된다. 낮설음의 기제는 동일화에 대한 거리두기를 전제하며 안/밖으로 낮설음의 경험이야말로 안과 밖의 경계가 깨트려지고 경계에 새로운 사유를 상상하게 한다.

나도 영육을 따라 ‘부천’이라고 발음해 보았다. 내 입에서 나온 그 소리는 너무 낮설고 이물스러웠다. 나는 생선 한 점을 입에 넣고 입술을 꼭 깨물었다. 내가 씹고 있는 것이 물고기 살이 아니라 쓰디쓴 약초 같았다. 입에서는 자꾸 쓴 맛이 올라왔다.

(『잘가라, 서커스』, 29)

중국 엔진에 거주하는 림해화는 맞선을 통해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기로 한다. 남자가 사는 곳은 부천이다. 남자의 고향이자 내가 거주하게 될 부천이라는 장소에 대한 느낌은 “낮설고 이물스러움”으로 표현된다. 카멜은 “하얀” 풍경을 깨뜨리고 피를 흘리며 상처난 몸으로 등장했고, 해화는 “여전히 북쪽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들켜서는 안 될 금기의 사랑을 안고” 출현했다. 부천의 봄을 통과하는 이들은 부조화의 낮선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처럼 낮선 타자의 출현은 익숙한 일상의 질서를 깨뜨리고 통합적인 질서에 균열의 조짐을 불러온다. “낮설다”의 주체는 『나마스테』의 경우 외국인 카멜이 아닌 신우가, 『잘가라, 서커스』의 경우 조선족 림해화 라는 위치의 상이성은 있지만 이주지에 도착한 그들의 표식을 알리는 방식은 동일성에 균열의 조짐을 예고하는 “낮설음”이라는 표지로 작동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낯선 이방인들이 출현하는 장소, 이들로 인해 “우리 가족”의 일상적 질서에 균열이 일어나는 곳, 이곳이 『나마스테』, 『잘가라, 서커스』의 서사적 공간 부천이다. 낯선 외국인의 등장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 주변과 함께 제 의미를 드러낸다. 낯선 그것과 만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 와중에 발생하는 혼란과 불순이 중심과 주변을 따로 있게 하지 않고 서로 오염되게 하고 바깥과 안을 겹쳐 놓는다. 이곳에서는 그 동안 보편으로 믿어왔던 풍속, 이념, 도덕, 종교 등의 관례가 무너지고 새로운 자리가 드러나는 순간은 위태로운 순간이다.²³⁾ 표면적으로 “모든 것이 혼 혼한” “사나이”의 집이나 “산벚꽃이 환환” 춘지봉 아래 신우의 집에 낯선 이방인과 이미 이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접촉은 기왕의 여러 익숙한 표식들에 대한 여러 의문을 노출시킨다.

3-2. 이곳과 저곳의 경계

『잘가라, 서커스』의 립해화나 『나마스테』의 카밀의 이주지 부천이라는 장소는 그때의 저곳 즉, 고향의 대비적인 설정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해화는 “여자 없는 집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식당을 꾸리는 일이나, 남편인 “사나이”에게, 시어머니에게 성심을 다하며 새로운 정착지에 적응해 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던 시어머니의 죽음은 표면적으로 평온했던 해화의 삶에 파멸의 균열을 가져온다.

나는 가능한 한 행복한 상상을 하려 애를 썼다. 햇살 아래 단감, 사과, 배꽃 날리던 언덕, 국경절 경축 야회 때 터지던 불꽃놀이, 붉은 기운이 감도는 석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목소리, 하지만 행복한 생각을 할수록 고통은 더욱이 실제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다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를 써야만 했다.(『잘가라, 서커스』, 113)

23) 백지은, 「지금 만나러 갑니다-최근 한국소설과 ‘낯선 삶의 출현」, 『세계의 문학』, 2007 가을, 298쪽.

여자의 행복한 상상 속에 있는 공간은 여전히 ‘그때 저곳’이다. 지금 이곳은 남편의 성적 학대의 고통뿐이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어머니의 죽음, ‘떨림과 울림’의 연정을 품었던 시동생도 없는 집에서 시동생과 아내의 관계를 눈치 챈 남편의 불안은 밤마다 아내에게 성적 폭력을 행사한다. 이때 해화는 “가능한 행복한 상상을 하려” 하는데 행복한 상상이 일어나는 장소는 그녀의 고향, 저곳이다. 이때 이곳과 저곳의 경계는 명백하다. 행복/고통의 경계는 저곳과 이곳을 명백하게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을 인식한 후 해화는 더 이상 집에 머물지 못한다. 집을 나온 그녀의 고향담은 더욱더 가속도가 붙고, 여기의 고행이 깊을 수록 저기의 낙원은 더욱 확장되어 그녀를 지배한다.

강한 친밀감을 유지했던 시어머니의 죽음, 시동생에 대한 “불경한 욕망”, 남편의 가학적인 성적 학대는 ‘낯설다’라는 인식의 경계를 새로운 공간의 생성으로 전환시키지 못한 채 자기 내부로 침잠해 들어가게 한다. “오래된 내면에서 다시 또아리를 트는” 것은 “고향 무덤 속에서 들었던 마음 속의 남자, ‘그’의 목소리”이며 몽환 중에 그의 목소리를 찾아 속초를 향하게 하는 것은 결국 기원에 대한 환상의 서사로 이어진다.

언젠가 변기 속으로 흘러보냈던 핏덩이를 생각해. 내 몸의 일부였던 그 붉은 덩어리 나그네의 웃음소리도 들려. 어머니의 나긋나긋하던 목소리도. 모두. 그리고 이제 돌아갈 테야. 거기. 따뜻한 무덤 속으로. 내가 살았던 곳으로. 이제 몸을 좀 뉘어야겠어.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아. 당신이 온 걸까? 아, 참 따뜻한 봄별이야.

(『잘가라, 서커스』, 238)

무덤은 하나의 상징성을 갖는 공간이다. 여기서 무덤은 개인의 원형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발해’라는 기표를 덧입으면서 민족의 기원지로도 확대된다. 작품 안에서 무덤이 그와 나의 개인적인 연애를 가능하게 했던 사적 공간이면서도 한편으로 그곳은 “발해의 정혜공주 묘”라는 점

에서 조선족인 나와 그의 민족의 기원으로까지 확대된다.²⁴⁾ 이 과정에서 해화는 무덤을 헤치고 나오는 데 실패하고 스스로 무덤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기원의 서사에서 한발도 나오지 못하는 형국을 초래한다. 자기의 근원, 민족 집단을 벗어나지 못할 때 개인적·문화적 정체성이 복수적이고 변화가능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 차별로 귀결된다.²⁵⁾ 정체성의 기원이 어떤 순수하고 안정적인 본질로 환원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이라는 기표 안에 주체를 복속시켜²⁶⁾ “나는 누구냐?” “나의 뿌리는 어디냐?”라는 질문으로 환원하게 하여 민족주의 담론으로 선회하게 한다.

『나마스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카밀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오빠에게 신우는 “오빠가 네팔에 대해 뭘 알아?” “나마스떼 알아? 히말라야, 카일라스, 알아?” 라고 말한다. 카밀이 “있었던” 그리고 “돌아가야 할” 네팔은 나마스떼, 히말라야, 카일라스로 표상된다.²⁷⁾ 의정부, 포천, 동두천 근방의 작업장에서 폭력적인 현실을 경험하면서 카밀의 고향은 점점 선명한 하얀색으로 표상된다. “자본주의의 치열한 경쟁논리가 가장 선도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카밀의 고향은 “천지사방에서 히말라야 빙하의 물이 흐르는 아름답고 고요한 안나푸르나 지역”으로

24) 무덤은 해화와 그 남자의 “송신탑” 역할을 한다. 이때 무덤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와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으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에 결국 실패하고 또다시 일본으로 밀항을 계획하고 있는 해화의 남자와 연결되면 이 부분은 더욱 선명해진다. 이 남자 역시 “발해가 누구의 역사인지, 내가 누구인지”(220)를 고통스럽게 질문하지만, 결국 얻은 답은 “이방인”,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이주의 적나라한 현실 앞에 무너지고 만다.

25) 윤희린, 앞의 논문, 303쪽.

26) 임유경, 「디아스포라의 정치학-최근 중국 조선족 문학비평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36, 199쪽.

27) 이는 일반적인 네팔에 대한 이미지와 다르지 않다. 산의 이미지, 신비한 사원의 이미지, 그리고 가난 등이 네팔에 대한 전형적인 표상체계이다. (문화관광부, 『이주민 공동체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조사연구: 다문화지도제작』, 2007, 176-178쪽)

설명된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고 여기와 저기가 통합되어 있다는 티베트의 성소 카일라스 산과 그 장대한 만년빙하의 히말라야” 이미지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면서 카밀의 고향은 하나의 종교로 승화된다.

“천지사방에서 히말라야 빙하의 물이 흐르는 아름답고 고요한 안나푸르나 지역의 서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해발 2600미터쯤 돼요. 진짜 아름다운 마을이지요. 여태껏 나, 카밀, 마르파보다 아름다운 동네, 보지 못했어요. 마을 앞으론 히말라야 빙하가 흘러내리는 칼리간다크 강이 있구요, 마을 뒤는 일년 내내 바람소리 붕붕하는 설산이 있구요, 그리고 강과 마을 사이에 사과밭들이 있어요.”(『나마스테』, 73)

동료의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사랑하는 애인이 성폭행당하고, 작업장에서 욕설과 폭행을 당해도 카밀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카르마’의 원천은 떠나온/돌아갈 고향의 자연으로부터 비롯되며 이 자연은 종교적 심성²⁸⁾으로 이어져 있다.

네팔에도 해가 뜨냐, 니네 나라에도 달이 뜨냐, 니네 나라 여자들도
애를 낳냐,
한국에 꽃 피고 새가 우냐 (『나마스테』, 57)

우리는 직원, 너희는 노동자.
우리는 주인, 너희는 노비 (『나마스테』, 193)

니네들과 우리.....²⁹⁾ (『나마스테』, 259)

34) 우한용, 앞의 논문, 22쪽.

29) 텐징의 친구가 한국에서의 편견이 국적 문제가 아니라 피부색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기까진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 껍데기를 다 벗겨서 한국사람 껍데기로 바꾸기 전엔 아무도 한국사람 취급 안 한다. 한국 사람들 진짜 지독해요 색깔대로 점수 매겨요. 같은 네팔 사람 중에도 그 친구 유난히 얼굴색 검었는데요, 항상 그게 문제였어요. 얼굴색으로 등급 다르게 쳐요, 여기선요.”(『나마스테』, 227)

위에 제시된 인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곳과 저곳의 이분법적 경계는 너/나, 니네들/우리/, 미국/한국, 한국/네팔, 주인/노비, 성/속, 선/악, 정신/몸 등등으로 반복 재생산된다. 이곳과 저곳의 이분법은 이곳저곳 각각에 배치되어 있는 카밀과 나의 경계까지 주체와 대상의 고정선으로 확정한다. 이민과 결혼의 실패에 따른 아픔을 갖고 세상과 벽을 쌓고 있던 나는 카밀로 인해 정화, 용서, 소통의 세상으로 나온다. 신우는 카밀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고 여기와 저기가 통합되어 있다는 티베트의 성소 카일라스 산과 장대한 만년빙하의 히말라야 이미지들”을 만나며, 그와의 성관계를 통해 “카일라스 산의 초입에 도달”하는 체험을 한다. 신우와 카밀의 섹스는 용서, 정화, 소통의 “제의적 퍼포먼스”이며 이때 카밀은 욕망의 육체가 아닌 신령스런 장소가 되고 그 장소를 통과한 신우는 일종의 정화의식(이민과 결혼의 실패의 동굴에서 탈출)을 치른 셈이다. 사랑하는 여인 사비나의 과거가 어떠해도, 한국에 와서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해도, 자신의 돈을 훔쳐 달아나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카밀은 그녀를 기다린다. 더욱이 자신을 배신한 사비나를 통해 자신이 더욱 정화된다고 믿으며 타국에 와 정착지의 낯선 주민인 신우의 삶에 까지 신비로운 “카르마”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카밀의 몸은 이미 탈장소화되고 신화가 되어 있다. “깊고 선한 눈”의 카밀과 지구를 “정화시키는” 히말라야 산으로 표상되는 카밀의 고향은 한편으로는 홀(S. Hall)이 이야기하는 “선량한 흑인”³⁰⁾의 재현논리와 상통한다. 상호교섭과 혼종의 서사를 상상하게 하는 이주 서사에서 이곳과 저곳의 이분법의 강력한 작동은 현장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복수의 목소리를 끝내 하나의 풍경으로 덮어버리고 만다.

은통 흰빛이었다. 마을의 모든 집들 외벽이 하얗고, 모든 집들의 문 앞에서 휘날리는 룡다가 하얗고, 마을을 빙 둘러싸고서 협곡 끝까지 피

30) 제임스 프록터, 손유경 역, 『지금 스텐워드 홀』, 앨피, 2006, 232-245쪽 참조.

어 있는 사과꽃이 희니, 눈부신 아침 햇빛과 만나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세계가 환하다, 라는 이미지 하나였다.

(『나마스테』, 389)

모국과 이주국의 관계를 결국 기원적인 것에 초점을 두거나 장소의 고유성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거나 모국과 이주국의 이분법적 배치 등은 오히려 이주민의 아이덴티티와 장소가 갖는 중층적 상호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순정한 기원에 대한 환상으로 가려진 지금 이곳에서 이주 주체(림해화, 카밀)의 설 자리는 없다. 이들의 추방은 경계를 넘었으나 넘지 못한 국가/민족의 경계 안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한 지점에서 이미 내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들의 현재적 삶을 구성하는 것은 지금-여기가 아니라 저기 “무덤”과 “카일라스”의 시간이다. 이미 신화적 성소로서의 카밀은 침범해 들어오는 자본주의의 세속적인 폭력 앞에서 운신할 수 있는 보폭은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와 민족을 넘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낭만적 사랑’이라는 그물을 설정해 보지만, 그것의 힘은 무기력하다. 사건이 진행될수록 서사적 공간 부치는 서울의 혹은 대한민국으로 대치되면서 어느새 안과 밖의 경계는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나마스테(안녕하세요)”는 대상을 잃은 채 메아리로 히밀라야 고원을 맴돌 수밖에 없다. 『나마스테』와 『잘가라, 서커스』에서 나/너, 너희/우리, 선/악, 피해자/가해자의 이분법의 포자들이 나열되면서 전개되는 이쪽과 저쪽의 선택을 강요하는 플롯이나 개인 고백담의 플롯은 하나의 기원적 서사를 모방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내적 형식을 보여 준다.

이주는 “지리적 뿌리내림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장소”³¹⁾의 관계성을 내재화한다. 물론 이때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관계망들을 전제한다. 이때 뿌리내림의 과정은 새로운 정착지의 문제만

31) 박배균, 앞의 논문, 623쪽.

은 아니다. 떠나온 저곳과 도착지인 이곳이 여전히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저곳과 이곳의 경계가 해체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체성은 형성된다. 그러나 『나마스테』나 『잘가라 서커스』에서는 이주도착지인 이곳이 이주 주체(카밀, 림해화)에게 현재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유보되면서 떠나온 고향과의 경계가 더욱 뚜렷해지고 이들의 자리는 더 이상의 힘을 얻지 못한다. 또한 이방인의 추방과 파멸이라는 플롯은 한편으로는 서술자와 독자의 성급한 공모를 유도하게 되며, 이는 낯선 이방인이 등장함으로써 제기되었던 물음들을 서둘러 덮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3-3. 혼종적 주체들의 가능성: 환대와 연대

장소를 토대로 한 경계 넘기는 이곳과 저곳의 장소를 매개로 하여 새롭게 구성되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경계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방인이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대부분 기존의 관습이나 관념을 초과하는 ‘도착적인 수행적 행위’로 작동하며 현재를 단절시키는 사건을 불러일으킬 수 있³²⁾는 존재이다. 소설 안에서 림해화나 카밀은 “말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피가 다른” 표지를 갖고 있는 이방인이다.

“제가 살던 용정에는 사과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과배라는 게 저희 중국 조선족들과 똑같단 말입니다. 왜서 같은가 하면 조선에서 이주해 오면서 사과 묘목을 갖고 온 사람이 그걸 연변 참배나무에 접목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모두 세 그루였는데 그중 용케 한 그루가 살아남았답니다. 그래서 열린 거이 모양은 사과 비슷하고 맛은 배 비슷한 희한한 과일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젠 용정의 특산물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용정에 있는 제일 큰 과수원은 그 면적이 만 무가 넘는다고 만무과원이라 합니다. 그러니 중국에서 터전을 잡은 우리 조선족들과 어찌 같지 않겠습니까.

(『잘가라, 서커스』, 58)

32) 자크 데리다, 남수인 역, 『환대에 대하여』, 동문선, 2004, 61-62쪽.

해화는 시집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 의기양양하게 용정의 “사과배” 이야기를 한다. 조선의 사과와 중국의 배를 교배해 사과배 라는 제 3의 품종이 탄생했는데, 이 새로운 품종이 오히려 용정에 있는 기왕의 배를 제치고 제 1의 특산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과배는 토착민과 이주민의 결합을 상징하는 알레고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 안에는 자신이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뿌리를 내려 사과배와 같은 결실을 맺고자하는 해화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집와서 식구들 중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사람은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이다.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절로 말문이 열렸던” 해화였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주요한 매개체는 “꽃밥통”이다. 해화가 시어머니 앞에 “엔지에서도 잘 쓰지 않는 꽃밥통을 꺼내면서 내심 불안해” 했으나, 시어머니는 “꽃밥통을 덥석 받아 안으면서 반가워할 뿐만 아니라 딱 이런 무늬의 꽃밥통을 쓴 적이 있다며 밥도 담고 떡도 담았더라고 몇 번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심지어 보기에 좋은 플라스틱 찬통을 치우고 그 자리에 가지런히 꽃밥통을 올려” 놓았다. 꽃밥통은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배려이고 소통의 매개체이다. 이것은 이곳과 저곳의 경계 밖에 있던 두 사람을 각각의 경계를 허물고 한 곳으로 불러 모으고 “마주보게” 하고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는 매개가 된 셈이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죽음, 시동생의 장기적 출타, 남편의 가학적 성폭력 등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해화는 자기 정체성에 의문을 던진다. ‘사나이’의 아내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음을 확인하고 그녀는 가출을 감행한다. 집을 나온 해화는 이후 “샹그릴라 모텔”, “인천 지하도 약장사”를 전전하는 등 그야말로 이주여성 고행담의 전형적인 행보³³⁾를 보여준다.

33) 결혼 이후 여성을 서사화한 작품들의 일반적인 플롯을 살펴보면, 이주-가출-파멸(죽음)의 고난사로 이어진다. 이들 대부분은 생계형 이주다. (「가리봉 연가」, 「그 여자가 사는 곳」, 「아홉 개의 푸른 쏘나」 등) 『나마스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마스떼』에서 남성인 카밀과 여성인 사비나의 이동경로는 다르다. 출발지 점에서부터 사비나는 병든 부모와 칠형제의 생계를 책임지고 한국으로 와 온갖

결국 부친이라는 공간은 중국 엔진에서 온 “낮선 이방인”을 환대하지 못하고 또다시 추방하는 공간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추방의 공간은 국경 내에서 확대된다. 해화의 옛 애인 역시 속초에서 확인한 것은 “이방인”,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사실뿐이다. 그 역시 다시 한국을 떠난다) 립해화나 카밀을 추방하고야 마는 부친이라는 서사적 공간은 “사과배”에 대한 욕망은 발화되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그것을 지연(遲延)시킨다.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이주 경험이 구성하는 정체성은 첫째, 모국과의 관계에서 둘째, 수용국과의 관계에서의 이중의 경계성(liminality)을 특징으로 한다. 모국을 떠나 낮선 한국 사회로 온 이주 주체들은 어떤 의미에서 두 사회 어디에도 완전히 통합되거나 완전한 귀속감을 가질 수 없는 경계적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다문화 담론이 배태하고 있는 “동화”와 “통합”의 논리는 이러한 불확실한 귀속의 불확실성을 허용하지 않는다.³⁴⁾ 이주를 서사화한 소설작품의 경우 대부분 비극적 파국을 맞이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소설적 반영이라는 측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나마스떼』의 카밀, 『잘가라, 서커스』의 립해화가 이주라는 모험의 항해를 시작하였으나 정박지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종내 좌초하고 마는 파국의 설정 또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폭력을 경험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이주의 선로를 이탈할 수 없는, 생계형 이주 여성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반면, 카밀은 이러한 생계형 이주의 경로에서 일찌감치 멀어져 있다. 카밀은 아버지의 “돈에 염증”을 내고 사랑을 찾아 국경을 넘은 “중세 기사의 망토”를 걸치고 등장한다. 텍스트 안에서 사비나의 삶에 대한 이력은 카밀을 통해 이야기되며, 보이는 대상과 보는 주체, 시혜의 대상과 시혜를 베푸는 주체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 사비나와 카밀은 또다시 시바/비슈누, 폭력/평화, 속/성으로 이원화되는 자리에 여성/남성의 젠더가 작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신우와 카밀의 경우도 동일하다. 언제나 능동의 자리에 카밀이 놓여있고, 나(신우)는 수동의 자리에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제 3세계의 ‘불평등한 성별, 인종, 섹슈얼리티의 축에서 진행되는 재생산의 체제를 전면 가동시키며 여성 노동을 착취하고 이주현상을 강화하여 여성을 재식민화하고 재타자화한다는 논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34) 변혜정, 「조선족 목욕관리사 여성의 몸일 경험과 여성성의 변화 가능성」,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편, 앞의 책, 165쪽.

그러나 이들 인물의 플롯이 파멸로 예정된 파국을 향하는 동안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또다른 이방인들은 파멸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집을 뛰쳐나와 오갈 데 없는 해화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하며 다독거려주는 조선족 동포 아주머니, “무뚝뚝하고 냉랭했지만, 냉랭함 속의 감출 수 없는 따스함”을 지니고 있던 조선족 약장수 아주머니가 끌어주는 미역국은 해화의 파멸을 지연시킨다.

어두운 해화동 고가 밑 어느 구석에서 얼어 죽어가면서 필사적으로 핸드폰의 번호판을 누르고 있는 중국동포 김원섭의 손이 보이고,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카리아의 경련하는 눈빛이 보이고, 목을 매어 축 늘어진 부르훈과 카임의 주검이 보이고, 전철역 플랫폼에 선 선로로 뛰어내리는 다르카의 산지사방 흩어지는 피땀은 살점들이 보였다.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잔인한 경험이었다. 한번도 본적이 없는 죽은 자들이 어떤 순간부터 선연히 떠올라 내 목을 죄는 것이었다.

(『나마스테』, 300)

위의 인용은 『나마스테』의 신우가 신문이나 TV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남의 일”인 외국인노동자의 죽음이 자신에게 개입해 들어오는 순간을 체험하는 장면이다. 신우는 공범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모멸과 분노 그리고 자기반성의 눈물을 흘리며 노동자들이 있는 농성장으로 달려간다. 농성장의 스리랑카, 네팔,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이란의 국적이 다른 노동자들, 시민운동가 민혜주, 신우의 아파트에 모여든 구룡, 덴징, 로리 부부 등이 보여주는 연대는 이들이 농성장의 시멘트 바닥의 추위도 견딜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배려와 보살핌의 연대는 이곳과 저곳의 경계를 허물고 낯선 이방인에 대해 환대의 포즈를 취한다. 그러나 이러한 플롯은 주인공의 파멸을 향한 플롯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이주의 서사가 내포하고 있는 혼종성은 그 형태에 있어서는 떠나온 고향과 거주하는 타향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를 두고 일어나는

문화의 접속과 교섭, 적응과 갈등, 수용과 배제의 역학이다. 결과적으로 혼종성은 이주민의 정체성이 형성되거나 변형하면서 다양한 주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동력이자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써 이주는 탈영토화된 상태에서 단일한 민족국가의 본질적 토양이 아니라 이질성과 다양성의 자기화 과정을 경험하면서 형성된다.³⁵⁾ 『잘가라, 서커스』, 『나마스테』의 경우 이방인의 등장으로 발생한 “혼란과 불순”이 ‘제3의 공간’ 만들기로 완성되지 못한다. 그러나 『잘가라, 서커스』에서 해화와 시어머니, 식당일을 보는 고향아주머니, 지하도에서 약을 파는 서씨 아주머니들과의 자매애, 『나마스테』의 신우와 국경을 넘는 노동자들의 연대는 추방(당)하는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틈을 엿보게 한다.³⁶⁾ 특히 『잘가라, 서커스』에서 해화가 “배 속의 뜨거운 것”을 쏟아냈던 것과는 달리, 『나마스테』의 신우는 카밀의 아이를 출산한다. 이러한 임신과 출산의 장치는 시공간의 단절이 아닌 과거-현재-미래를 이어나가는 연속성을 드러³⁷⁾내는 장치로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두

35) 이수안, 앞의 자료집.

36) 이 작품에서 인물의 플롯에서 남성들과 평행선을 긋거나,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에 비해 여성들(시어머니, 국밥집 동포 아주머니, 거리 약장수 아주머니 등은 포용과 배려의 관계를 형성한다. 젠더의 측면에서 『잘가라, 서커스』는 또 다른 독법이 요구되는 작품이다. 이미 다른 남자를 품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가부장제도에 대한 위반과 조롱의 한 형식이 될 수 있다. 지구화를 남성적 제국의 거대한 음모로 파악한다면, 『잘가라, 서커스』의 해화의 플롯은 이미 그 출발선에서 가부장제에 반문을 하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구화의 폭력 앞에 대안의 공간으로 제시할 수 있는 형식으로 식민지(타자, 여성)들의 소통, 연대의 길목을 열어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논지의 독법은 지구화와 젠더의 틀을 두고 천착되어야 할 것이므로, 장을 달리 해서 서술하기로 하겠다.

37) 레비나스는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 시간을 확장시켜주는 길은 생산성 또는 비옥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때 생산성은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 수태 가능한 것을 뜻한다. 생산성을 통해 시간은 무한성의 차원, 절대적인 미래, 폭력과 죽음에 맞서는 무한한 잉여의 차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아이가 ‘타자가 된 나’이다. (E. Levinas,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145-147쪽)

작품의 결말이 시사하는 바는 사뭇 다르다. 그러나 카밀과 신우의 2세가 자유로운 공간은 종교적으로 승화된 자연-카밀의 고향-이라는 설정은 일상과 생활로 표현되는 어느 시대의 시대성보다는 시대와 격절(隔絶)된 원형적 시간의 존재³⁸⁾의 상상력을 제공한다는 점이 놓여 있다.

4. 남는 문제: 재현의 전략들

이주민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도 미리 주어진 것도 아니다. 이주의 여정이 젠더, 인종, 계급, 종교, 언어, 그리고 세대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 기준들 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런 지표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일상적 경험과 생활세계, 실천과 의미화 그리고 주체 형성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의식의 변화³⁹⁾ 등의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주 주체라는 낯선 이방인은 그 존재만으로 (초)민족국가성의 정치경제적 기표 아래 지역공동체로서 민족/국가에 대한 새로운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적 출발점⁴⁰⁾으로 작동될 수 있다. 국경을 넘거나, 넘어선 국경 안에서 계도화된 도시의 주변부를 형성하고 있는 낯선 인물들에 대해 서사적으로 응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간 존재의 기원과 형식에 대해 탐색하고 근대적 개인의 삶과 국민국가의 안/밖을 사유하는 것이 이주의 서사적 재현의 출발지다.

한편, 재현(representation)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배제, 조합과 구성 등의 작업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의미생산의 방식이다. 스피박의 “하위주체는 말할 수 있는가”라는 언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재현체계는 언제나 주류사회의 문화적 코드와 가치체계로 재현된다. 이러한 스피박의 언술은 하위주체가 말할 수 없음

38) 우한용, 앞의 논문, 27쪽.

39) 윤혜린, 앞의 논문, 297쪽.

40) 태혜숙, 『대항지구화와 아시아 여성주의』, 울력, 2008, 258쪽.

의 단언이 아니라 스스로 말할 수 없는 무력감에 대한 역설이었다. 특히 재현된 소수의 이미지는 전형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때로는 특정 소수집단 구성원의 전형으로 간주된다. 이들에 대한 서사적 재현의 전략은 지배적 담론으로 이들을 재현하는 지식인의 위치가 아니라 재현하지/되지 못하는 목소리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지배자의 목소리에 산포하여 균열과 혼란을 통한 자기반성이나 타자를 향한 배려 그리하여 주체와 타자가 함께 승인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홀(S. Hall)이 지적하였듯이 정체성이란 이미 완성되거나 확립되어 있는 그 어떤 요소가 아니며 문화적 재현 속에 구성되고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결코 완성되지 않은 산물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특히 공간의 이동과 이로 인한 문화적 상호교섭으로 구성되는 이주민의 정체성은 더욱 유동적이고 복수화된 개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문학에 나타나는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의 재현 양상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결같은 이국적이고 낯선 얼굴과 이어지는 고행담의 정형성이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선’을 설정하고 문턱의 경계에서 지켜보는 감시의 시선, 혹은 공범과 연민의 서술자 위치는 재고되어야 한다. 즉 ‘안’의 재현논리를 넘어 ‘다르게 말하기’의 재현정치에 대한 여러 갈래의 고민들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혼성성 담론의 허구성에 대한 부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이는 재현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주 노동자의 현실적 착취구조를 모른다거나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상호교차성, 관계성, 연관성이라는 장황한 수사 안에서 부지불식간에 지워지는 부분들 가령, 『나마스테』에서 이국의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잘가라, 서커스』에서 근친상간의 서사가 진행되는 동안 말해지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를 살펴야 한다. 『나마스테』에서 혼종적 주체들의 흔적과 역사적 궤적을 “하얀 세상”으로부터 다시 비집고 나오게 하는 방법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재현전략들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범신, 『나마스테』, 한겨레출판사, 2005.
- 천운영, 『잘가라, 서커스』, 문학동네, 2005.
-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 김용우, 「초국가적 유럽 이주사 연구를 위해」, 『서양사론』 102호, 2009, 363쪽.
- 김은실, 「지구화, 국민국가 그리고 여성의 섹슈얼리티」, 『여성학논집』 19집, 2002, 29쪽.
- 문화관광부, 『이주민 공동체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조사 연구』, 2007.
- 박배균,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연구: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의 4가지 공간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5권 제5호, 2009, 623쪽.
- 변혜정, 「조선족 목욕관리사 여성의 몸일 경험과 여성성의 변화 가능성」, 이화여대한국여성연구원 편, 『지구화 시대의 현장 여성주의』, 이화여대출판부, 2008, 165쪽.
- 백지은, 「지금 만나러 갑니다-최근 한국소설과 ‘낮선 삶의 출현」, 『세계의 문학』, 2007 가을, 298쪽.
- 오경석,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2007, 23-24쪽.
- 오윤호, 「디아스포라의 플롯」, 『시학과 언어학』, 2009, 제17호.
- 우한용, 「21세기 한국사회의 다양성과 소설적 전망」, 『현대소설연구』 40, 2009, 27쪽.
-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고려대출판부, 2004, 5쪽.
- 윤혜린, 「문화 횡단의 맥락에서 본 문화 상대화와 문화 상대주의 사이의 개념적 공간에 대한 여성철학적 성찰」 『철학』 95집, 2009, 296쪽.

- 이상화, 『지구화시대의 현장 여성주의』, 이화여대출판부, 2007, 37-40쪽.
- 이수안, 「스킨 서핑: 성적 타자로서의 결혼 이주여성 이미지」, 이화여대 인문과학원 탈경계의인문학 연구단 국제학술심포지움 자료집, 2009, 9.
- 이혜경, 「이민정책과 다문화주의: 정부의 다문화정책 평가」,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국사회학회, 2007.
- 이호규, 「타자’로서의 발견, ‘우리’로서의 자각과 확인」, 『현대문학의 연구』 36, 2008.
- 임유경, 「디아스포라의 정치학-최근 중국 조선족 문학비평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36, 2008, 199쪽.
- 정현주, 「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대한지리학회지』 43권 6호, 2008, 905쪽.
- 지용신, 「재현된 서사와 이산 체험의 복원」, 『한국문예비평연구』 26, 2008.
- 태혜숙, 「여성과 이산의 미학-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지형도」, 『영미문학 페미니즘』 8권,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00, 225쪽.
- 태혜숙, 『대항지구화와 아시아 여성주의』, 울력, 2008, 258쪽.
- 요시미 순야, 박광현 역, 『문화연구』, 동국대출판부, 2008, 171-172쪽.
- 아르준 아파두리이, 배개화차원현·채호석 역, 『고삐풀린 현대성』, 현실문화연구, 2004, 60-67쪽.
- 데이비드 헬드 외, 조효제 역, 『전지구적 변환』, 창비, 2002, 445-513쪽.
- D. Massey, “The Political Place of Locality Studi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23, No.2, 1, 1991, pp.267-270.
- 임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145-147쪽.
- J. Lévy & M. Lussault, *Dictionnaire de la Géographie et de l'espace des sociétés*, Belin, p.616.

자크 데리다, 남수인 역, 『환대에 대하여』, 동문선, 2004, 61-62쪽.

제임스 프록터, 손유경 역, 『지금 스투어트 홀』, 앨피, 2006, 232-245쪽.

<Abstract>

Narrative for Migration and Locality
- Representaion of Migration in *Namaste* and
Goodbye, Circus -

Moon, Jae-Won

Migration is a process of spatial movement with corresponding emotion, an idea on resources and body. This spatial movement is not only a mere process crossing through a space, but a political process of scale that either creates a new scale or disturbing the existing scale. These relations between a migrating area and a settlement, and those of immigrants and natives need to changeover from the operation of 'clear diving-line' to the relation with 'creative tension.'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a place for new relationship where diverse phenomena of crossing a national border and a place for producing various differences where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continue to cross, and looks at how the migration has been represented in current Korean literature by using the migration as a prerequisite frame of reasoning. In particular, *Namaste* by Beom-shin Park and *Goodbye, Circus* by Woon-young Cheon are examined to understand how the migration space is represented. Formulaic aspects such as consistent, exotic and unfamiliar face, a series of penance stories, and eyes of surveillance at the threshold of a border by setting up a 'line forbidding the transcendence of a threshold', and the position of a narrator having compassion or being accomplice need to be

reconside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pread out a variety of ideas regarding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for ‘speaking differently’, which is beyond the logic of the ‘inside.’

Key Words : Migration, Stranger, Border, Locality, Representation

- 논문접수 : 2010년 2월 28일
- 심사완료 : 2010년 4월 10일
- 게재확정 : 2010년 4월 15일